

신안 하의초, 전교학생회 주관 즐거운 가을 축제 개최

‘내가 제일 잘나가’ 프로그램·‘아나바다 함께 나눠요’ 활동 준비해 선보여 4가지 체험부스는 준비부터 진행까지 4개의 활동 부서가 중심 되어 진행

신안 하의초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인성 및 사회성 증진과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가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전교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공개 오디션 ‘내가 제일 잘나가’ 프로그램과 ‘아나바다 함께 나눠요’ 활동을 준비하였고, 체험부스로 건강체육부의 정전기볼 만들기 활동, 환경부의 할로윈 디퓨블럭 키링 만들기 활동, 또래상담부의 랜덤플레이댄스 활동, 도서부의 풍경 만들기 활동이 이뤄졌다.

4가지 체험부스는 준비부터 진행까지 4개의 활동 부서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정전기볼 만들기는 정전기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고, 낙엽으로 가을 느낌을 느끼면서 할로

윈 분위기도 낼 수 있는 활동이었다. 풍경 만들기 가을 도안을 선택하여 직접 색칠하면서 나만의 가을 풍경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었다. 할로윈 디퓨블럭 키링 만들기는 디퓨블럭을 조립하여 나만의 할로윈 분위기를 낼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었다.

랜덤플레이댄스는 요즘 유행하는 활동으로 무작위로 음악을 틀면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즐기는 활동인데 학생들이 평소에 즐겨 듣고 추는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이 평소에 쌓여있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맛있는 간식 시간도 있었는데 오뎅, 닭꼬치, 호떡 등도 먹으면서 즐거움을 더했다.

가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공개 오디션

‘내가 제일 잘나가’ 활동이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개의 팀이 순서대로 나와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친구들끼리 틈틈이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사회도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해서인지 무대가 더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구방위대 후레쉬맨 무대가 친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는데 남학생 5명이 후레쉬맨 영상과 노래에 맞춰서 코믹한 춤을 추면서 무대를 더욱 즐겁게 빛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아나바다 함께 나눠요’ 활동을 하였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서 직접 물건 가격을 정하고 물건을 전시하고 학생들이 판매도 함께 해서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판매된 수익은 불우한 이웃



을 돕는 성금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험을 준비한 6학년 이OO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가을 축제가 쉽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후배들이 모두 즐거워해서 보람 있었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중학교에 가서도 학생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하의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힘을 계획한다.

신안=이덕주기자

완도 금일초, 독서관장 매직쇼 ‘달콤한 무한 상상’ 개최

금일읍사무소 주최, 관내 유치원·청소년 및 학부모들 대상



완도 금일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금일읍사무소에서 주최하는 독서관장 매직쇼 “달콤한 무한 상상”을 개최하였다. 금일 관내 유치원청소년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번 매직쇼는 “2023년 도서지역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도서 지역 학교 및 병영도서관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

외를 겪고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독서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단순한 매직쇼가 아닌 독서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책인형과 함께하는 복화술, 몽키인형과 함께하는 개구쟁이 상황극, 비둘기와 실수를 이용한 마술, 독서관장 카드 마술 등 다양한 매직쇼가 펼쳐졌다. 수준 높은 공연 선보인 마술사에게 금일읍 청소년 및 학부모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금일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나주 공산초, 최덕규작가와의 만남 운영



나주 공산초등학교는 10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주 동안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2023학년도 독서인문주간을 운영하였다. 이 주간에는 독서2060운동, 아침 그림책 읽기 활동, 독서나눔마당, 최덕규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독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공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독서 2060운동을 통해 1년간 하루 20분씩, 연간 60권을 읽는 운동에 참여했으며 전교생이 이번 독서인문주간까지 60권을 다 읽어 독서 열매를 수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매일 책을 읽고 독서통장에 60권을 기록한 5학년 김가희 학생은 “1년간 60권이니 읽다니 뿌듯하다. 앞으로도 독서 통장에 다양한 책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며 독서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아침 그림책 읽기 활동은 2학기 동안 학부모회와 함께 이루어졌다. 매주 학부모들이 교실과 도서관에서 학년별로 그림책을 읽어주며 학생들과 책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특히 이번 독서인문주간에는 5학년 독서 동아리 ‘복올라’ 학생들과 함께 밀도 있는 아침 그림책 읽기 시간을 가졌다.

최덕규 작가와의 만남은 작가님을 만나고 싶은 학생자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최덕규 작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여 아내인 김윤정 작가와 공동작업으로 <빛을 비추면/2018>과 <점이면/2023>을 출간하였으며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유명 작가이다. 학생들은 학급별로 주제 그림책 네 권을 읽고 표지 그리기, 만들기 등 사전 활동을 한 후,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작가는 1인 공연을 펼치며 나를 설레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작가님과 뜻 깊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사인회로 작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도윤 전교학생회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빛을 비추면> 작가님이 직접 우리 학교에 오셔서 너무 행복했다. 작가님에게 사인 받은 책은 평생 간직할 것이다.”며 책을 안으며 미소지었다.

오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최덕규 작가의 ‘내 이야기를 담은 매직북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김은진 학부모회장은 “평소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명한 작가님과 함께 활동을 해보니 배울 점이 많았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매직북 만들기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장성여중, 학생 독립운동 행사 진행

장성여자중학교는 지난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아침 등굣길에 학생 독립 운동의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장성여중 학생자치회는 등교맞이를 하며 학생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학생 독립 운동의 정신을 알렸다. 또한 1교시에 영상 시청과 읽기 자료를 통해 1929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당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학습하는 계기교육

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인 배움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학생 독립 운동 되새기기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건전한 민주의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캠페인을 주도한 학생회는 우리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3·1운동 이후 최대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하고,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하였다고 의미를 밝혔다. 학생회장(3학년 이수빈)은 “내



년에는 오늘의 행사를 더욱더 확장시켜 당시 학생운동의 열을 살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